

“의원들 다 어디 갔냐” 鄭 호통… 광주·전남의원들 화들짝

“전당대회 이후 첫 현장최고위인데 광주·전남 소속 의원들 다 어디 갔냐”

8일 전남 무안군 상항읍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8·2 전당대회 후 첫 현장최고위 회의에 앞서 주변을 숙 둘러보던 정청래 대표가 회의 시작과 함께 던진 말이다. 이례적인 질타성 발언에 회의장에 순간 긴장감이 돌았고 광주시당·전남도당위원장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졌다.

정 대표의 “빠 있는 돌직구”는 이어졌다. “오늘 최고위는 광주·전남 합동 회의다. 안오신 분들은 왜 안오셨는지 사무총장이 사유를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쐐기도 박았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 방문은 광주 5·18 묘지 참배와 현장최고위 등 크게 2가지로 압축됐고 광주·전남 의원 18명 중 두 행사 모두 참석한 의원은 양부남 시당위원장과 주철현 도당위원장, 서삼석 호남특위 초대위원장 겸 최고위원, 신정훈·문금주·김문수 의원 등 모두 6명이다.

광주 민형배·박군택·정준호 의원은 5·18 참배, 전남 박지원·권형업 의원은 최고위 회의에만 각각 참석했다. 현장최고위만 놓고 보면 광주 의원 8명 중 단 1명만 참석했고 5·18 참배에는 전남 10명 중 절반이 불참했다.

불참한 의원들은 당대표 불호령에 화들

정청래 대표 첫 현장최고위서 불참한 지역구 의원들 공개 질타

‘호남 꺼안기’ 속 “뒤통 원팀 촉구한 메시지 점 회초리” 해석도

불참 의원들 SNS에 “해의 출장” “TV 출연” “통보 못받아” 해명

짜 놀라 부랴부랴 페이스북 등에 해명 글과 인증샷을 올렸다.

4선 이개호 의원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한·일의원연맹과 민단 나가사키본부 주관으로 80년만에 처음으로 일본 현지에서 열리는 ‘나가사키 원폭 한국인 희생자 위령제’ 참석차 일본에 머물고 있다고 알렸다.

김원이 의원은 “글로벌 비영리단체 초청으로 영국과 덴마크 선진 해상풍력 벤치마킹 중이다. 전남에서 최고위가 열린다는 사실을 출국일 이후야 알게 돼 조율하기 어려웠다”며 시찰 개요와 일정표까지 공개했다.

정진욱 의원은 “대선, 총선, 당 대표까지 이재명 후보 수행 대변인 3차례에 계엄, 탄핵까지 4년1개월간 맘 놓고 쉬 적이 없어 큰 맘먹고 아내와 독일여행 중”이라며 “호남 최고위 개최 소식은 독일에서 들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불참 의원들도 건강검진, TV출연 등을 이유로 두 행사 모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소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최고위

참석과 관련, 어떠한 통보나 안내를 받은 적 없다.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보였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현직 근기잡기로 보는 시각과 함께 당대표 선거후 강조해온 화합과 탕평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정치적 메시지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 심장부이자 당정이 각별히 챙기고 있는 호남에서부터 진영 갈등이나 속칭 ‘갈리치기’가 아닌 ‘용광로 행보’를 보여주는 취지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선 18명의 지역구 의원 중 광주 2명, 전남 3~4명만 정청래 지지 성향으로 분류됐을 뿐 나머지는 ‘당·정·대 원팀’을 강조한 박찬대 후보에게 줄을 섰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를 의식한 듯 정 대표는 이날 회의 도중 전남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독려하며 “지난번 이태식, 유동수 의원처럼 (당대표로 누굴) 지지했다, 안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다 아니까”라며 지역 건의사항만 소신껏 밝혀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역계가 관계자는 “5·18 참배, 첫 현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전남 무안군 민주당 전남도당 대회실에서 열린 제145차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고위, 호남특위 출범과 위원장 인선까지 당 지도부의 호남 꺼안기에선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불참 호통도 진영 논리 같은 건 접어 두고 광주·전남 의원들이 똘똘 뭉

쳤으면 하는 바람이자 일종의 회초리 아니겠냐”고 말했다. /뉴스1

이 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 경기도 의정부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언론 보도 후 사고 인지하는 경우 많아… 더 빠른 보고체계 지시”

노동부에 산재 사고 관련 사전·사후 조치 등 국무회의 보고 지시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이) 언론 보도

후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있다”며 “사고 자체를 국정상황실을 통해 보고 받도록 보고 체계를 상시화하라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 위상을 노동자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했다. /뉴스1



“대한 독립 만세!” 광주·전남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 다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을 위한 순국선열 희생을 기리고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가 광주·전남 곳곳에서 열린다.

10일 광주·전남 등에서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오전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 일대에서 ‘봉오동 전투 물총축제’를 개최한다.

1920년 홍범도 장군이 지휘한 독립군이 일본군을 격파한 봉오동 전투를 물총축제 형식으로 재현한 행사다. 저마다 쟁쟁한 우의를 입고 팀을 나눠 물총으로 전투를 벌이면서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긴다.

고려인마을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신청할 수 있고,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물총과 우비, 태극기를 준비해 행사장을 찾으면 된다.

같은 날 광주시는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송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북구 중흥동 스테이지(STA·G) 다목적홀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연다.

독립유공자와 나라사랑 유공자 포상, 기념공연 등이 진행된다. 경축행사에 앞서 상무시민공원 일대에서는 월남전 참전기념탑 부지 지정 기념행사도 예정돼 있다.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뮤지컬과 영

고려인마을서 봉오동 전투 재현 물총축제
독립운동가 박열 조명 뮤지컬·영화 상영
전남도청서 ‘빛 되찾은 날’ 특별전·교육 축제도

화도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광복절 당일 오후 3시 예술극장 2부대에서 독립운동가 박열의 삶을 조명하는 ‘뮤지컬 박열’을 선보인다.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 내 조선인 학살 사건과 일왕 암살 음모를 둘러싼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뮤지컬이다.

일제의 조작과 억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신념을 지켜낸 두 사람의 저항정신을 전통예술과 결합해 예술적으로 재구성했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전한다.

오는 16일 오후 2시 ACC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는 ‘영화 박열’을 상영한다. 박열의 법정 투쟁을 실제 재판 기록을 바탕으로 긴장감 있게 풀어내 개봉 당시 평단과 대중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배우 이재훈·최희서가 출연한다.

전남에서도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이 열린다. 전남도는 도청 갤러리에서 ‘빛을 되찾은 날 광복 80주년 이야기’를 주제로 오는 24일까지 특별전을

연다.

독립기념관 소장 전시물 30여점을 전시,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다. 3·1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된 일제강점기 민족 운동과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양한 시각자료와 함께 소개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광복군의 활약을 조명,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광복을 쟁취하기 위해 흘린 피와 노력의 역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는 13~14일 이틀간 광복 80주년 기념 ‘의(義)교육’ 축제가 개최된다. 전남지역 학생들이 기획하고 참여, 배움·공존·공유 3개 테마를 중심으로 의 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돌아보고 실천 방안을 나누는 자리다.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한다.

합창단 공연과 학술 프로그램, 초·중·고 학생이 참여하는 민주·역사 골든벨도 운영한다. 평화·정의·인권·민주를 주제로 40여개 전시·공연·체험 부스도 마련한다. /이광수 기자

“금호타이어 화재피해, 주민참여형 보상심의 체계 필요”

최지현 광주시의원, 입장문 내고 보상·안전대책 촉구

“주민피해 보상 35% 뿐… 불투명한 기준에 주민 고통”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측의 책임있는 보상과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지현(광산 1) 의원은 8일 입장문에서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는 도심 전역으로 퍼졌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 악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에도 금호타이어는 피해 규모와 보상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 적극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총 2만여건의 피해 신고 중 실제 보상절차에 들어간 건 7000여건(35%)에 불과하다”며 “금호타이어는 책임있는 자세로 보상 절차를 재정비하고 주민대표와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보상심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장기 건강 영향을 고려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피해접수 자료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연령, 거리, 질환관계 등 피해의 객관적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공장 해체·철거 작업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그는 “철거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2차 화학물질 노출 등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사계획과 절차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 불안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인 최 의원은 “금호타이어가 책임을 외면하고 방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주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공정 정성화를 진심으로 바라는 지역민의 기대를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남 기자

완도해양치유센터
완도, 그리고 힐링
함께라서 더 좋은 치유

할인 EVENT!

가족(3인 이상)	30%
단체(10 이상)	20%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10%

위 치 > 전남 완도군 신지면 해양치유길 100
Tel. (061) 550-7675~6 / 인터넷(홈페이지) 예약 필수

프로그램	기본 ①	기본 ②	디럭스	프리미엄	전문 수중 재활
	대인 36,000원 소인 26,000원	대인 28,000원 소인 22,000원	대인 80,000원	대인 125,000원	1:1 90,000원 2:1 70,000원

※ 안전상의 이유로 36개월 미만은 입장이 불가합니다.